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5월 22일 (제84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불만의 음성을 들어라

입은 다물 수 있지만, 귀는 열려있다. 왜? 입은 다물어야 살지만, 귀는 열려 들어야 살기 때문이다.

먼저 육체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간이 계속 '술 먹으니 내가 힘들다, 아프다' 하는데도 술을 계속 먹으면 간이 이혼하겠다고 한다. 간암! 폭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위의 소리를 안 들으면 위도 이혼하겠다고 할 거다. 위암, 최소 위경련! 나도 요즘 내 육체의 불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조절도 한다. 그 래야 30년 통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남을 해치는 거다'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구속! 영창신세가 된다. '이건 찜찜한 일이 아니다'라고 양심이 외쳐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결국 망신살이 뺏치고 만다. 명예실추!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리고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갈라지고 영벌의 길로 가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불만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지옥은 탈출구도 없고, 재기할 수도 없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종업원의 음성을 들어야 기업이 살고, 고객의 불만의 음성을 들어야 기업에 발전이 있다. 가족의 음성을 들어야 가정이 살고, 성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교회가 산다. 또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국가가 산다. 자고로 귀명창이 명창이다.

귀가 커야 큰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청종(聽從)하는 삶을 살자. 들을 청(聽)이요, 좇을 종(從)이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귀를 쫑긋 세워 듣고, 그 말이 옳다 여겨지면 행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요 장수하는 길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잠25:12).

스승은 제자의 앞길을 닦아주는 분이다

"앞길을 닦아주는 분, 곧 길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모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목적지를 알려주는 분이 스승이다." 러시아(Russia) 모스크바(Moscow)에 포트르(Peter)라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었다. 어머니의 기도로 신 앙생활에 발을 들여놓고는 있었지만, 그리 신심이 깊어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스크바 집회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말 그대로 폭삭 깨져버렸다. 목사님이 소원하시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겠다며 웅숭한 대접을 계속했다. 떠나기에 앞서 목사님이 벡타이를 선물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한 여인이 따라오더니 너무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며 꽃다발을 목사님께 드렸다. 참 신선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목사님의 삶은 아주 단순명료하다. 밖에 나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살리고 기쁨을 주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혼신을 다하고,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에 전무하신다. 그 철저함, 예외 없는 원칙에 때로는 벽차고 힘들 때도 있지만, 30년을 넘게 외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의 삶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흔들림 없

신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 일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6:6). 목사님을 통해 믿음과 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제발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의 총만한 복을 받아서 그 기쁨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목사님이 날마다 피를 토하며 가르치는 말씀은 귓전으로 흘러보내고는 허구한 날 넘어지고 자빠져서 울며 살려달라고 목사님을 찾지만 말고,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접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격의 스승을 만난 자는 4~50년을 특별 수 있으나 영혼의 스승은 영원을 도모할 수 있다

하며 포옹해주자 그 상남자가 붉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세계 더 많은 곳에 가서서 이 소식을 전하셔야 할 분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빠져 살던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남긴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특히 목사님을 차로 모시는 드라이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 그들은 직접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목사님의 삶을 보기 때문이다.

멕시코(Mexico) 어느 도시에서는 목사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집회를 배설한 현지 목사에게 목회의 원칙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저만치 건너편에서 듣고 있던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삶은 충분히 존중되고 박수 받기에 합당하다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이전에, 생각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천국시민이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 그날의 상급과 왕권을 알고 그 날을 향해 경주할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 그러한 믿음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 아닌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가족들에 끌려 교회 문지방은 수없이 드나들었음지는 몰라도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너무도 쉽게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해주

간증으로 보답해드리라는 것이 작게나마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은혜를 가슴에 새겼다면 말이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 스승이 된다. 모두 내가 간 길을 따라오기 바란다." 나를 닮기 바란다'는 간곡한 주문인 것이다.

지난 스승의 날, 각 부서에서 목사님께 꽃다발과 선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었다.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목사님이 더욱 건강하시고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말이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일 것이다. 아멘, 그대로 되어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구 88체육관)**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0:17~35)

목적이 있는 자는 포기를 모른다

지난 4·13총선 때 후보자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하고 자신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비란내 나는 상인의 손도 덩석 잡았고,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시민 앞에서도 화내지 않고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국회의원이 되리라’는 목적이 있었기에 그들은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버렸고, 또한 피곤함도 없이 그렇게 달렸던 것입니다.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올 8월에 열립니다. 지금 대통령수준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 차 가면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아직 영주권이 없는 자들을 보면 눈물이 날 만큼 고생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사님, 팬클럽입니다. 영주권만 나오면, 시민권만 나오면 당당한 직업을 갖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목적의식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잡아야 달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선전들은 다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입니다. 그때 정확히 방문 목적을 말해야 합니다. 여행을 왔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다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든지 말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 목적도 분명해야 한 나라에 입국이 허락되는데, 하물며 인생의 목적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달성이 있습니다. 과녁에 화살을 쏘듯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무찌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북선을 건조하고, 군사를 훈련하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전략을 끌어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굴욕적인 한일합방의 주적(主敵)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암살한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조국을 기필코 독립시

키고야 말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항했고, 해외로 뛰어나다며 대한민국이 약소민족으로서 일본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리는 등, 민족을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주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아래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

로 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방향하지 않았고, 또 그에게 80의 나이에도 40대의 기력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께 찬하나님이심을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450대 1로 싸웠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왕상18). 엘리야는 기필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며 엘리야를 쫓더니 그의 계승자가 되어 정말 갑절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왕하2:9).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8:18)는 그것, 즉 그 날에 받을 큰 영광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

했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매오도 꼭 눈을 뜨겠다는 목적이 있었기에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고(막10:46~52), 수로보니게 여인도 개 취급을 받았지만 딸을 고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며(막7:25~30),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결말도 목적이 분명한 자가 일군 쾌거입니다. 12년 동안 혈투증을 앓던 여인(마9),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던 입다(삿11), 친구를 중풍병에서 낮게 하겠다

는 목적이 있었던 네 친구(막2:1~5), 꼭 아들을 낳

는 것 이 목적이었던 한나(삿1), 이 모두 목적이 분명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 분은 주야로 기도

에 몰두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8~39). 그러나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단이네, 가짜네 하는 언론 속에서 꾀꾀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눅22:30), 열 고을을 다스릴 권세(눅19:17)가 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사람이 많건 적건 최선을 다해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르쳐서 만물과 만인 앞에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으면, 혹은 목적의식을 상실하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 꼴이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

과녁이 있어야 화살을 쏠 수 있다

을 상실하자 불평하고, 실망하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삼손도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나실인으로 태어나 사사가 되었지만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목적을 상실했기에 한 여자에 휘둘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삿13~16).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쟁취하는 것에 있습니다(골3:20). 그 날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성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관섭 장로는 현재보다 몇 십 배 좋은 직장에서 오라고 해도 장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고사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바로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노력하고, 인내하고, 기쁨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에 이르는 길이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힘에 겨울 수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자존심을 버려야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이 라헬을 얻을 목적이 있었기에 7년을 수일처럼 느꼈고(창29:20),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부끄러움을 참았던 것을 기억합시다(히12:2).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배를 만들기 전에 바다를 동경하라

visit?)”입니다. 그때 정확히 방문 목적을 말해야 합니다. 여행을 왔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러 왔다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든지 말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 목적도 분명해야 한 나라에 입국이 허락되는데, 하물며 인생의 목적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내가 받은 최고의 유산

나는 5남 2녀의 4번째, 3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58세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91세로 장수중이시다. 아버지는 본인이 일찍 가실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25세 되기 전에 차례로 출가시키셨다. 몇 달 전에 어머니하고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참 이상하시다고. 자식들 장가들여 세간내면서 모두 넉넉하게 빌딩지어서 세간내시고, 그것도 부족해 서울 근교에 자식들 모르게 자식들 뚝으로 땅까지 주시고는 유독 나만 살림집 하나 텅그러니 남겨주시고 가셨다. 거기에서 어머니까지 텅으로 주셨다. “남들은 부모 모시는 자식은 유산도 더 준다는데, 제 일 조금 준 나에게 어머니까지 맡기고 가시냐?”고 하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다” 하신다. 지난주, 어버이날을 지내고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다른 자식들은 빌딩에 땅을 줬지만 너는 어머니를 주지 않았니? 그 어머니와 빌딩 백 개인들, 땅 수천 평인들 바꾸겠니?” 하신다. 나는 이제 알았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는 최고, 최상의 유산임을. 그것뿐 아니다. 나는 참 복도 많다. 형님으로부터 더 큰 유산을 받았으니. 형님 통해 예수를 알았고, 성령을 심령에 모셔 드리는 복을 받았다. 이 유산은 어머니에 비할 수 없는 상천하지에 최대 유산이다. 나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한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더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넘치게 만족하게 받았습니

다.” 그저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개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부모를 섬기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개, 돼지나 별 다를 바 없다. 복이 복인 줄 아는 자에게만 진짜 복이 되는 것이다. 복을 받고도 복이 뭘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이 절대로 복이 아니다. 최고의 유산, 최고의 선물들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깨닫고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횡방자요 꺾박자요 포항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딤후1:12~14).

이시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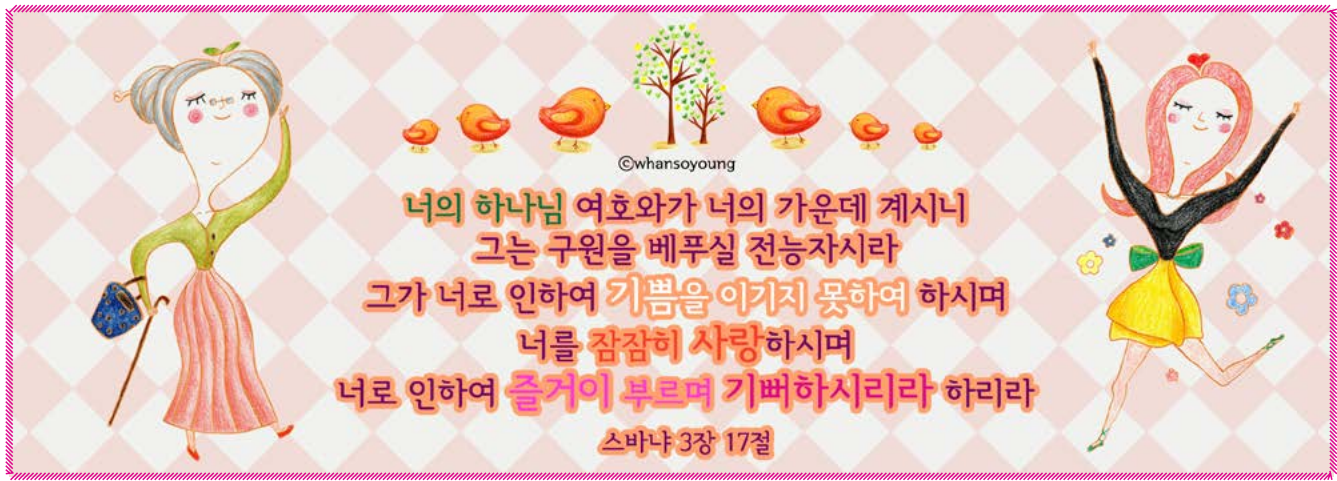
개와 늑대의 차이

개와 늑대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사람이 아니면 열 수 없는 철창 안에 고기를 넣어놓고 개와 늑대에게 고기를 꺼내서 먹게 하였다. 늑대는 철창 밖을 서성이다가 이빨로 철창을 물기도 하였고, 발로 차기도 하였고, 이곳저곳을 만져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철창을 열지는 못하였다.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포기하였다. 개도 마찬가지로 철창에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잘 안되자 사람에게 열어달라는 듯이 애처롭게 쳐다보았다. 사람은 그 눈빛을 보고 차마 안 열어줄 수가 없어서 철창을 열어주었고, 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늑대는 야생성이 남아있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개는 사람과 함께한 지난 역사가 있어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어떤 문제는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리고는 이걸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내 능력 밖이라고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 우주만물 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력투구를 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 있다. 그 때 하나님을 찾아라. ‘왜 내가 하려 하느냐?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눅18:27),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언 16:3).

김성일

cre8tor@naver.com



:: 성경에세이 ::

생각이 중요해!

여보게! 얼마 전 수요일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요기나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TV에서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방송을 하더군요. 들어보니 다 맞는 말더군요. 관절도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고 닳는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나도 요즘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지 뭐냐. 나도 퇴행성관절염이 맞구나 생각했네. 식사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는데, 자꾸 ‘나도 퇴행성관절염이니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누워서 기도를 했네. 그런데 말일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거야. 아차, 싫었네. 내가 퇴행성관절염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인정해버렸으니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온 거지. 나는 바로 거울을 보고 귀신을 쫓았네. 그리고 무릎을 꿇고 3시간을 부르짖었다네. 그랬더니 다리가 멀쩡해졌지 뭐냐.

여보게! 이게 생각의 힘이고, 생각의 힘이란 이렇

듯 무서운 거야.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내 육체를 점령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라’고 설교하는 거라네. 생각이 말을, 말이 운명을 결정짓거든.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들어봤나?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효과’인데,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을 감기약이라고 하고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정말 감기가 낫는 효과가 나타난 것을 말한단네. 그런데 실제로 이 위약효과를 통해 많이 치료하는 사례가 발표되고 있네. 심리치료지. ‘이 약만 먹으면 낫는다’는 생각이 비타민제를 먹고도 불치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생각하신 후에 창조하셨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더니 결국은 삼십 냥에 판 것 아닌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옳다네. 자네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나는 ‘아직 청춘이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네. 그래서 그런지 30대 기력이 생기더군요. 그러니 자네도 좋은 생각, 멋진 생각을 하며 살게나.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보스와 리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회사나 교회 및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리더(leader: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보스(Boss: 실권 책임자)인지 리더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보스와 리더는 같은 뜻의 단어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보스는 ‘공포심’을 심어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준다. 보스는 ‘해라’라고 하지만, 리더는 ‘같이 하자’고 솔선수범한다.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가’라고 한다.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나 리더는 ‘팀워크’를 유발한다. 보스는 먼저 ‘말하지만’, 리더는 먼저 ‘듣는다’. 보스는 ‘원망’을 낳으나, 리더는 ‘신바람’을 일으킨다. 보스는 잘못을 ‘꾸짖지만’, 리더는 잘못을 ‘고쳐준다’. 문제가 생기면 보스는 ‘팀원 탓’을 하지만, 리더는 ‘플랜B’를 제시한다. 보스는 일의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만, 리더는 ‘팀’에게 돌린다. 위의 글은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는 글로 인터넷에서 꾸준히 회자되며 많은 회사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리더십이란 뒤에서 호령하는 것이 아닌 앞에서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은 리더 자신의 희생과 배려, 팀원들을 공감하고 섬기는 인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이 원하는 참 리더의 자격을 갖춘 분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은 죄인 된 우리가 낮아져서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하셨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소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셨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보스가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어설피게 죽은 돼지 때문에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신 목사

필자가 신학 생일 때의 일이다. 기도원 집회 중에 식당에서 급히 돼지 잡을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마침 봉사자 중에 그 누구도 경험자가 없는 것이었다. 어찌라! 별 수 없이 그래도 요리 경력이 있어 칼 좀 써 봤다는 이와 힘 좀 쓴다는 젊은이들 몇이 나섰다. 주방 바닥에 누워있던 건장한(?) 돼지는 제 운명을 눈치 챘는지 요란스럽게도 온 몸을 뒤틀어 댔다. 다리에 줄이라도 묶어두면 좋았으련만 어찌구니없게도 초보 도살자들은 다리 하나씩을 붙잡고 그렇게 돼지와 생사를 가르는 씨름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 칼에 먹을 따야 된다’던데 안타깝게도 칼잡이의 칼은 빗나가고 말았다. 더구나 목에 깊이 박힌 칼 때문에 ‘퍽퍽’거리며 몸부림치던 돼지의 기세에 놀라 어설피게 돼지 다리를 잡고 있던 이가 그만 다리를 놓치는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엔 아뿔싸! 돼지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목에 칼을 찌고 있는, 피를 툇툇 흘리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돼지와 그 돼지를 반드시 잡아 성도들의 주린 속을 달랠 제물로 쓰겠다는 이들의 경주는 그렇게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바닥은 돼지 피로 난장판이 되었고, 돼지 먹파는 소리는 식당을 넘어 기도원 경내에 울려 퍼졌다. 나중엔 눈이 뒤집힌 돼지가 주방을

장악한 나머지 사람들이 쫓겨 다니는 촌극이 벌어졌다. 어설피게 칼 맞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야 그냥 암전떨고 있고 싶었겠는가! 가만히 목 내밀고 있다가 한방에 흑 가는 상황인 것을. 이렇듯 못 남겨 보고, 가족조차 쓰일 새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말이다.

가만히 그 때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면 헛헛한 웃음과 함께 항상 송구한 맘이 앞선다. 주님께 말이다. 이 한 몸 바쳐 온전한 제물이 된다면 잔칫상에 오른 돼지 마냥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어 줄 터인데... 가정에서고, 교회에서고,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체면이란 게 또 무엇인지, 오해받고 무시당하면 슬그머니 치솟아 오르는 이 요란한 성미여! 이 때문에 주님 속을 얼마나 아파게 했을꼬?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 아니던가! 못된 자아는 온전히 깨어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며, 기업과 나라가 산다. 결코 적당히 죽어서는 안 된다. 반만 죽어서도 안 된다. 목에 칼 찌고 반쯤 죽은 돼지가 기도원 식당을 무단 점령해 버렸듯, 꼭 반쯤 죽은 이들 때문에 심령들이 상하고 조직이 멎는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하고 있다. 치사하고 서러워도,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해도 온전히 죽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과시욕을 경계하자!

몇 년 전부터 금융회사에서 과시욕이 강한 20대들을 타깃으로 수입차 리스 사업에 집중한 결과, 대금을 갚지 못한 청년들에게 벌어들인 중도해지 수수료가 무려 38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허영심과 과시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과시욕으로 넘어진 인물로 솔로몬이 자주 거론된다. 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가 안타깝게도 자신이 받은 축복을 만천하에 드러내고픈 욕망만큼은 절제하지 못하고 몇 가지 실수를 남겼기 때문이다. 먼저, 그는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요긴한 교통수단인 나귀를 사육하여 애민(愛民)의 정책을 펴는 대신에 힘과 권력,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말의 사육을 대량으로 늘리며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왕상9:19).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돕는 ‘실용성’보다 다른 나라에 권력을 과시하는 ‘체면’을 택한 것이다.

두 번째, 방패를 금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왕상10:16~17), 강도가 약하고 무게가 무거운 금으로 만든 방패보다 사실 전쟁에서 더욱 유용한 무기는 놋 방패였다. 이 역시 자신을 과시하고픈 솔로몬의 허세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 1년에 200번 가량 지진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에서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업에 가볍고 튼튼한 뽕나무를 사용하

지 않고 무거워서 자칫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백향목으로 지붕을 덮은 것도 실용성보다 과시를 더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당시 남성으로서 명예의 상징인 처첩들을 많이 거느리며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했고, 이로 인해 이방여인들의 종교와 우상숭배가 유입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나라가 분열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하나뿐이어도 열이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성경은 거듭되는 자기 과시와 허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하의 영광을 맞본 솔로몬조차 결국 패망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교훈해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이시면서도 사역하시는 내내 자기과시가 없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죽하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 다대오가 ‘예수님께서서는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지’ 의아해할 정도니 말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담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설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랄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렘9:23~24). 하인명 renming@daum.net

::Edu Section::

꿀통을 발로 차지 마라

한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었다. 처음에는 불편하기만 하고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습관이 버릇이 된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오고가는 왕복 두어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몸이 곤할 때면 당연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번쾌스러운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다. 감히 이런 모습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거의 이십년 전, 처음으로 올림픽공원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인생의 절반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목사님의 설교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나”에게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넘어, 인생 전부였다.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열정으로 양육해주시는 당신이 계셨음에 아장겉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 달콤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건강을

이유로 또,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달콤한 나의 꿀통을 발로 툇툇 차며 밀어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실명의 위기에서 건강한 눈을 다시 찾게 해주셨고, 읍과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굳건히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지표를 허락하셨고, 망해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그 모든 행사는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과 목사님 덕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태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나약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이번 춘계산상집회는 꼭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매일 기도했지만, 막상 집회일이 가까워오자 학생들의 시험 일정이 겹쳐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 되어버렸다. 예전 같았다면 늦은 밤이라도 단숨에 달려가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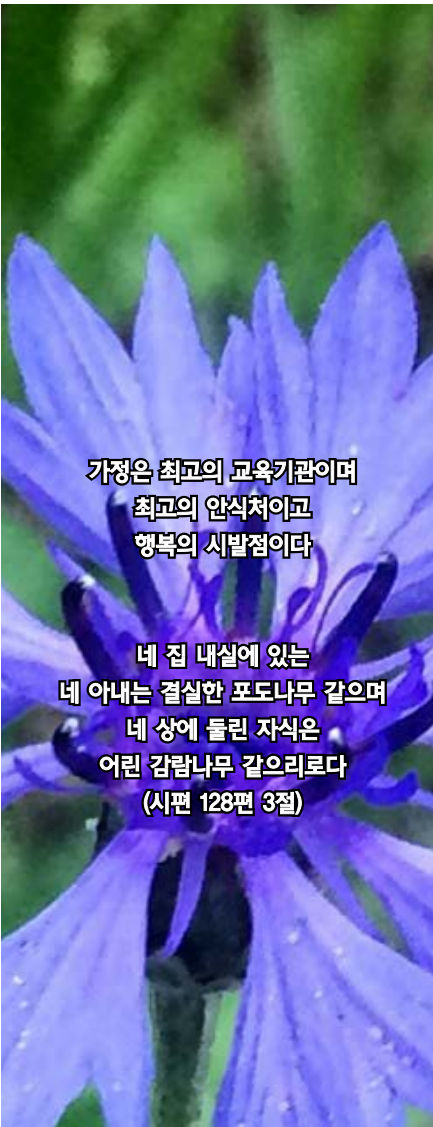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을 텐데 건강과 체력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

가끔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건강과 부요가 그저 생기는 것인 줄 안다.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익숙한 달콤함에 무뎌져 로템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엘리야처럼 숨을 죽이고 있다.

인생의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꿀맛을 보고서도 인간의 미련함과 게으름 때문에 주일이면 건강을 핑계 삼고 먼 거리를 핑계 삼아 인생의 소중한 꿀통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시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애통하고 매달리지만, 일어서서 나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다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견어차고 밀어냈던 꿀통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함께 하길 기도해본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가정은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최고의 안식처이고
행복의 시발점이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시편 128편 3절)